

“수치로 설명되지 않는 대학의 가치 발현해야”

전남매일 제5기 CEO경제아카데미 개강

정성택 전남대학교 총장

일자리·인프라 부족 청년 유출 원인 대학 혁신·발전으로 지역 성장 도모
김선남 대표 “인적 네트워크 보탬”



정성택 전남대 총장

의 어떤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하니, 라는 시구로 시작하는 이 시와는 달리 현재 우리 광주·전남 청년들의 청춘에서는 이 시 속 열망과 자신감, 모험심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정 총장은 “3포에서 5포, 5포에서 7포, 7포에서 모든 것을 포기한 N포 세대가 된 현재 청년들은 미래가 없다는 좌절감 아래 취업 포기 및 부채 증가로 소소한 일상마저 포기한 상태”라며 “특히 지역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 부족과 열악한 정주여건으로 더욱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러한 청년세대의 상실감을 보여주듯 2022년 시·도별 합계출산율은 1.12명을 기록한 세종을 제외하고는 1명도 채 되지 않는다. 광주는 0.84, 전남은 0.97명이다.

지역 청년의 역의 유출 또한 마찬가지. 정 총장은 “수도권에는 좋은 일자리와 근로조건, 다양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높은 삶의 질과 잠재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 등 장점이 존재한다. 최근 가장 인기가 높은 IT산업만 봐도 그렇

지역 경제 오피니언 리더 양성의 산실로 자리매김한 전남매일 제5기 CEO경제아카데미가 20일 개강했다.

홀리데이 광주호텔 2층 아델리아홀에서 진행된 이날 개강식에는 김선남 전남매일 대표이사 와 정성택 전남대학교 총장, 5기 원우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선남 전남매일 대표이사는 환영사를 통해 “올해로 50주년을 맞은 전남매일 CEO 경제아카데미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탁월한 선택이 될 것”이라며 “이번 아카데미에서도 뛰어난 강의진을 통한 다양한 정보 습득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각 원우들의 사업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개강식에 이어 첫 강의에 나선 정성택 전남대학교 총장은 “청년의 미래”를 주제로 강의했다.

사무엘 올만이 78세에 쓴 명시 ‘청춘’을 소개하며 강의를 시작한 정 총장은 “청춘이란 인생



20일 오후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제5기 전남매일 CEO경제아카데미’ 개강식. 정성택 전남대 총장이 ‘광주·전남 청년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다. 개발자의 경우 강남과 성남에 쏠려 있으며, 수도권 정보통신업 창업 기업 수도 또한 경기 및 서울권이 3,000개 이상이나 광주는 51곳에 그친다”며 “4차산업의 등장 이후 부의 편중화는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격차는 더욱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학의 위기 또한 광주·전남 청년들의 미래를 어렵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다. 현재 대학교육이 산업 수요와의 괴리가 크기 때문. 정 총장은 “세계대학평가에서 상위 100등안에 드는 대학은 얼마 없으나, 대학 입학 전 공교육비가 OECD국가 평균 대비 최고금액을 기록하는 것 또한 시대

의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기성세대와의 가치관 충돌과 광주·전남 등 지역이 가진 ‘상생’이라는 지역정신이 오히려 청년들의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광주전남이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말하지만, 딱히 자랑스럽게 내세울 가치나 문화가 없다는 것. 정 총장은 “광주는 이미 회색빛 도시가 됐고, 청년들은 이 도시에서 더 이상 새로운 미래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하고 떠나가고 있다”며 “결국 청년들을 위해서는 다시 ‘대학’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을 통한 교육의 장을 만든 그리스의 ‘아

카데미’와 현대 대학의 원형이 된 이탈리아의 ‘볼로냐 대학’, 현존하는 최고의 대학 모로코의 ‘알 카리윈대학’과 고려·조선시대 최고교육기관이었던 ‘성균관’처럼 중요한 대학이 도시의 성장을 이끈 것처럼 대학을 중심으로 다시금 지역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총장은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대학 체계를 바꿔야 한다”며 “기술발전과 과학, 취업률 등 수치로 설명되지 않는 대학의 가치를 발현하는 것이 앞으로 대학이, 그리고 지역 청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오지현 기자

광주국세청, 납세홍보 수요조사 홈페이지 개설

광주국세청은 21일 코로나19 이후 국세행정 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납세자의 다양한 세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납세홍보 수요조사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납세자 중심의 현장소통을 확대합니다’로 시작되는 홈페이지에는 국세청이 추진 중인 업무집행과 관련해 납세자의 건의사항이나 애로 사항 등을 선제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설문조사 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광주국세청 각 부서의 간담회나 설명회 일정을 공지하고 세목별 도움 자료와 숏폼영상을 게재해 납세자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영석 광주국세청장은 “납세홍보 통합관리 홈페이지를 내실있게 운영해 납세 현장의 요청



납세홍보 맞춤형 수요조사 홈페이지 캡처

사항을 세정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세무정보에 취약한 납세자에게 먼저 다가가는 광주국세청 납세홍보 시스템이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수 기자

광주상의, 전자입찰 실무교육 내달 4일 개최

광주상공회의소는 광주시와 공동으로 오는 4월 4일 오후 2시 3강의실에서 “2023년 제1차 전자입찰 실무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자입찰에 대한 활용 및 이해도 제고를 통해 경기침체로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의 공공 및 민간 입찰에 대한 낙찰률을 높여 매출증대에 기여하고자 마련 된다.

주요내용으로는 ▲입찰의 개요 및 절차 ▲공고의 구성 및 입찰용어 ▲입찰의 계약방식 ▲신

용평가 확인서 발급 ▲투찰금액 산정 및 적격심사 점수 산출 ▲낙찰 및 계약 유의사항 ▲입찰 정보 서비스 이용방법 등이다.

교육은 전액 무료로 진행되며, 광주상공회의소 맞춤형 입찰정보 서비스 홈페이지(gjcci.bidpage.c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광주상의 협력사업본부 062-350-5891. /이연수 기자

전남농협, 쌀 적정생산 권역별 설명회

농협전남본부는 21일 본부 2층 대강당에서 쌀 수급안정과 쌀값 안정을 위해 쌀 적정생산대책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전남도와 벼 수매농협 관계자 8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들에게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전략작물 직불제’와 전남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전남농협은 두류 농작업 대행 우수사례 전파 및 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농협 임직원들과 전라남도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6,853ha) 달성을 결의했다.

이번 설명회는 전남농협이 농협 임직원에게 쌀 적정생산에 대한 필요성 및 대 농가 홍보활동을 적극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성진 기자


www.shsa.kr

삼성전자 시스템에어컨 & 가전 대량납품 전문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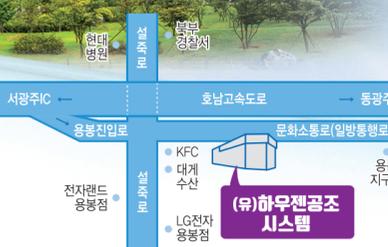
(유)하우젠공조시스템

(유)하우젠공조시스템은 학교, 아파트신축, 대형빌딩, 병원, 대학교회 등 시스템에어컨 대량납품 전문회사로 최첨단 제품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최적 맞춤설계 및 고품질 시공과 완벽한 사후 관리를 약속드립니다.



대표이사 **신철우**







영업모집
○ 정규직 2명 ○ 프리랜서 수시
※ 남녀 연령 무관 / 출퇴근 자율

www.shb2b.kr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소통로 54(용봉동) FAX. 062-515-7878 E-MAIL. shsa9999@daum.net TEL. 062-511-0006